

2016 6월 18일 지방직 9급 A형 (배미진 샘 해설)

홈페이지: www.baemijin.com

1. 비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인 것은?

- ① 새빨갳다 ② 덮밥, 질푸르다
③ 감발, 돌아가다 ④ 젊은이, 가로막다

②

★정답풀이

■ -밥: 「명사」 갖은 야채나 고기 따위의 재료를 볶거나 부치거나 튀기거나 하여 밥 위에 얹어 먹는 음식.

◆ 덮- + 밥 [용언 + 체언]

↳ ‘덮은’ → ‘덮-’: 어미 ‘-은’ 생략됨. 비통사적 합성어.

■ 질-푸르다: 「형용사」 질게 푸르다.

◆ 질- + 푸르다 [용언 + 용언]

↳ ‘질게’ → ‘질-’: 어미 ‘-게’ 생략됨. 비통사적 합성어.

적중 문제 어미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

, **검붉다** <2016 지방직 모의고사 4회 14번, 15회 16번> **덮밥** <2016 지방직 모의고사 11회 1번>

★오답풀이

① ■ 새-빨갳다: 「형용사」 매우 빨갳다. ◆ 접두사 ‘새-’ 결합된 파생어.

■ 열-쇠: 「명사」 자물쇠를 잠그거나 여는 데 사용하는 물건.

◆ 열-ㄹ + 쇠 [용언 + 체언]

↳ ‘열-ㄹ’ → ‘열-’: 어간의 ‘ㄹ’은 탈락되고 관형사형전성어미 ‘-ㄹ’은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

해설 【열쇠←열-+ㄹ+쇠】 【열쇠 15C [←열-+ㄹ+ㄷ+쇠]】

참고 ‘자물쇠’도 ‘열쇠’와 같은 짜임으로 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즈믄다’는 ‘잠그다’의 옛말이다.

■ 자물-쇠: 「명사」 여닫게 되어 있는 물건을 잠그는 장치.

◆ 자물 + 쇠 [용언 + 체언] 관형사형전성어미 ‘-ㄹ’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

국립국어원 해설 【자물쇠 < 즈믄쇠 < 즈믄쇠 ← 즈믄-+ㄹ+ㄷ+쇠】

시험 적중 문제 접두사 ‘새-’

새빨갳다 <2016 실전문제 400 15회 15번>, **새파랗다** <2016. 3-4 모의고사 9회>

시험 적중 문제 관형사형전성어미 ‘-ㄹ’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

길잡승 <2016 3-4월 모의고사 10회 6번> **날잡승** <2016년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15회 16번> **열쇠** <2016 알찬국어 1권 p.63>

③ ■ 돌아-가다: 「동사」 ◆ [용언 + 용언] 연결어미 ‘-아’ 결합됨. 통사적 합성어.

■ 감-발: 「명사」 = 발-감개. ◆ 감- + 발 [용언 + 체언]

↳ ‘감는’ → ‘감-’: 어미 ‘-는’ 생략됨. 비통사적 합성어.

참고

■ 발-감개: 「명사」 버선이나 양말 대신 발에 감는 좁고 긴 천. = 발-싸개.

◆ 발-감개, 발-싸개 [체언 + 체언] 통사적 합성어. ◆ 감-개, 싸-개 [어근 + 접미사 ‘-개’] 파생어.

시험 적중 문제 연결어미 ‘-아/어’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

돌아가다 <2016 3-4월 모의고사 4회 1번>

시험 적중 문제 관형사형전성어미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

④ ■ 젊은-이: 「명사」 나이가 젊은 사람.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채언	관형사 + 명사	채언-용언	용언-채언 어미 ○	용언-용언 어미 ○	용언-채언 어미 ×	용언-용언 어미 ×	부사-명사	접두사	접미사
돌다리 4	첫사랑	힘들다	젊은이	알아보다	늦잠 3	굶주리다 2	부슬비 4	시동생	선동이
앞뒤2		빛나다 2	젊은이	몰라보다	감발	질푸르다			티럭(털-억)
책상 2	첫아들	앞서다 2	어린이 2	가져오다	늦더위 4	높푸르다 5	척척박사3	맨손, 맨몸	바람둥이
책가방	첫눈	손쉽다	갈릴길 3	데려가다	꽃감 3	검푸르다 2	흔들바위	휘감다 4	멋쟁이
동화책	저분	맛있다	큰집 2	돌아가다 2	덜밥 4	검붉다 3	헐떡고개	휘두르다	대장장이
어깨동무	이분	맛나다	큰형 2	돌아보다	겪쇠	돌보다 2	출랑새	새빨갰다 3	잠보, 울보
밤낮 5	여러분	힘차다	작은형 3	잡아먹다	꽃감 3	설이다 3		새파랗다	조용히
밤하늘	새언니	기차다	작은아버지2	급여모으다	접갈	뛰놀다		짓밟다 2	깨끗이
똥오줌2	새해 3	힘쓰다	작은집	찾아보다	묵발	우짚다		2	몹시
논밭 3	이것	용쓰다	먹을거리	들어가다	먹거리	오가다		짓이기다	막이, 놀이
기아집	웬일	낮설다 2	디딤돌 2	빨아먹다		불잡다 2		햇바지	노리개, 찌개
고추장		귀먹다	지난여름	놀아나다		굳세다 2		덧가지, 덧신	지우개 3
놀이터		칠들다	길잡승			여단다 2		애호박	달걀
손발 2		값없다	(-르-잡승)			오르내리다		참숯, 참떡	슬기롭다
손바닥		맛없다	날잡승	엎어누르다		엎누르다		참깨, 참기름	평화롭다
손짓		웃으르다	(날-르-잡승)	뛰어놀다		뛰놀다		참다랑어	사랑스럽다
세감자		생각나다	건널목	날고뛰다		날뛰다		드눅다 2	복스럽다
면도칼			단팔죽	사고팔다				꽃사랑, 꽃나물	어른스럽다
하루하루			(달-르-팔죽)					꽃고추	
눈물			열쇠	쳐부수다				되물다	, 정답다
할미꽃				쳐들어가다					
눈요기								군사람, 군석구 3	남자답다
김치찌개3								군볼 2, 군발 4	학생답다
귀동냥								군살, 군소리2	시골뜨기
꽃신								군기침, 군침	선생님
장군감				부사-용언				외아들, 외마디	수술실
안녕감				가로지르다				만아들	반짝이다
연세				가로막다2				덧가지, 덧신	흔들거리다
집안				못생기다				헛고생2, 헛수고	객쩍다
살림집				잘생기다				강소주, 강굴	끝내
국거리				그만두다				강된장, 강밥	구경꾼, 일꾼
자랑거리				똑같다 2				알밥	사냥꾼, 장꾼
나뭇잎				가만두다				돌베개2, 돌미역	기름기, 장난기
서릿발, 면발								들볶다, 들끓다	곱빼기
국숫발				가만있다				막노동	부채질
산비탈								막노들	툽질2
<<2015. 표준국어대사전 수정 전>> 접두사 '한-' 'ㄱ' '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관형사 '한' << 수정 후>> '만형사' 'ㄱ' 그 수량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말.				한복판, 한시름	말쑥꾸러기
								한감, 한길	가난뱅이
								한여름, 한겨울	동갑내기

2. '정확한', '한정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3. '같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삭제됨) 한마음, 한패, 한집안, 한동네 →(삭제됨)	2. '어떤'의 뜻을 나타내는 말. 3. '같은'의 뜻을 나타내는 말(추가됨) 한마음, 한패, 한동네, 한집안 등을 합성어로 봄.		, 한밤	버슬아치
			햇곡식, 햅쌀	잠, 춤(명사)
			참쌀, 땀쌀	, 깎두기
			찰흙, 찰옥수수	바가지, 모가지
			2. 울되다	낮추다 3
			들국화	먹이다 2
			개살구	먹히다
			날고기	끓기다 2
			공수표	잡히다 3
			맹물	일으키다
			민머리	피곤하다
			치막다	가난하다
			치박하다	나날이
			치솟다 2	넓이, 없이
			엷든다, 엷보다	높다랗다
			불여우	깨뜨리다
			데생기다	새침대기

2. 맞는 것은?

- ① 치뤄야 대가를 얻을 수 있다.
- ② 내로라하는 선수들이 뒤쳐진 이유가 있겠지.
- ③ 방과 후 삼촌 댁에 들른 후 저녁에 갈 거예요.
- ④ 가스 밸브를 안 잠궜 화를 입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정답 ③

★정답풀이

■ : 「동사」 ‘ㄹ’ 탈락 용언. 【..에】 【..을】 지나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른다.

㉠ 들르다/집에 가는 길에 술집을 들러서 술을 마셨다.

들르 + ㄴ(관형사형어미) → 들른 (○)

★오답풀이

① 치뤄야 (×) → 치러야 (○): ‘치르다’ (○) - 표준어, ‘치루다’ (×) - 비표준어

■ 치르다: 「동사」 ㉠ 【..에/에게 ...을】 주어야 할 돈을 내준다. ㉡ 【..을】 무슨 일을 겪어 내다.

치르 + 어야 → 치 르 + 어야 → 치러야 (○) ‘치르다’는 ‘ㄹ’ 탈락 용언이다.

② 뒤쳐진 (×) → 뒤처진 (○): ‘뒤처지다’가 기본형이므로 ‘뒤쳐진’으로 적어야 한다.

■ 뒤처지다: 어떤 수준이나 대열에 들지 못하고 뒤로 처지거나 남게 되다.

참고 동사 ‘치다’가 결합된 합성동사들

- 처내다01: 깨끗하지 못한 것을 쓸어 모아서 일정한 곳으로 가져가다.
- 처내다02: 체를 흔들어 고운 가루를 뽑아내다.
- 쳐주다: ㉠ 셈을 맞추어 주다. ㉡ 인정하여 주다.
- 쳐들다: 위로 들어 올리다.
- 쳐다보다: ㉠ 위를 향하여 올려 보다. ㉡ 얼굴을 들어 바로 보다. ㉢ 의지하며 바라보다.
- 쳐부수다: ㉠ 공격하여 무찌르다. ㉡ 세차게 치거나 때려 부수다.
- 쳐들어오다: 적이 무력으로 침입하여 들어오다.
- 쳐들어가다: 적을 무찔러 들어가다.
- 처내려오다: 적이 위쪽이나 북쪽에서 공격해 오다.

참고 처-: 「접두사」 ((일부 동사 앞에 붙어)) ‘마구’, ‘많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치막다/처냉다/처바르다/치박다/치대다/처담다.

■ 치막다: ㉠ 욕심 사납게 마구 먹다. ㉡ ‘먹다01’를 속되게 이르는 말.

- : ‘처먹다’의 사동사.
- 처닫다: ㉠ 함부로 거칠게 닫다. ㉡ 빈틈없이 굳게 닫다.
- 처넣다: 마구 집어넣다.
- 처대다01: 함부로 불에 대어서 살라 버리다. =처지르다.
- 처대다: ㉠ 함부로 자꾸 대 주다. ㉡ 마구 대다.
- 처답다: 마구 잔뜩 답다.
- 처박다: ㉠ 매우 세게 박다. ㉡ 함부로 막 박다. ㉢ 마구 쑤서 넣거나 폭 밀어 넣다.
- 처신다: 함부로 잔뜩 신다.
- 처지다: ㉠ 마구 축 늘어지다. ㉡ 뒤로 남게 되거나 뒤로 떨어지다. ㉢ 다른 것보다 못하다.
- 처박히다: ‘처박다’의 피동사.
- 처마시다: ㉠ 욕심 사납게 마구 마시다. ㉡ ‘마시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 처바르다: 몹시 많이 바르다.
- 처들이다: 돈, 시간, 물자 따위를 마구 쓰다.
- 처지르다: ㉠ 아궁이 따위에 나무를 마구 몰아넣다. ㉡ 처대다01.
- 처말기다: 억지로 마구 말기다.
- 처쟁이다: 잔뜩 놀라서 많이 썰다.

잠귀 (×) → 잠가 (○): ‘잠그다’ (○) - 표준어, ‘잠구다’ (×) - 비표준어

‘잠그다’는 ‘-’ 탈락 활용 용언이다.

‘잠그 + 아 → 잠 ㄱ + 아 → 잠가 (○)’의 형태로 활용한다.

- 적중 문제** <2016. 지방직 및 서울시 대비 동형 모의고사 9회 14번>, <2016 알찬국어 1 p.160, 439>
- 시험 적중 문제** 들르다 <2016. 지방직 및 서울시 대비 동형 모의고사 13회 2번>, <2016 알찬국어 1권 p.160>
- 시험 적중 문제** 접두사 처- <2016. 지방직 및 서울시 대비 라이브 특강 31번>, <2016. 지방직 및 서울시 대비 동형 모의고사 17회 7번> <2016 알찬국어 1권 p.84>
- 시험 적중 문제** 잠그다 <2016. 지방직 및 서울시 대비 동형 모의고사 5회 20번, 9회 14번, 18회 9번>, <2016 알찬국어 1권 p.160, 439>

시험 적중 문제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은? <2016. 지방직 및 서울시 대비 라이브 특강 31번>

- ① 닭똥을 쳐내다. ② 네 땅을 평당 100만 원으로 쳐줄 테니 나에게 팔아라.
- ③ 피아노가 잘 안 쳐져요. ④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적을 쳐부수었다.

정답 ③

3.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지금으로부터 십여 년 전에 작은 소요가 있었다.

- ② 우리는 모임에서 정한대로 일정을 짤 수밖에 없다.
- ③ 수정 요청시 연관된 항목을 재조정 하여야 할 것이다.
- ④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뿐 아니라 추진력 마저 없는 사람이다.

정답 ①

★정답풀이

‘오로’와 ‘부터’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 것이 맞다. ‘십여 년 전’에서 ‘여’는 접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고 ‘년’은 의존명사, ‘전’은 명사이므로 각각 앞말과 띄어 쓴다.

시험 적중 문제 접미사 ‘-여(餘)’ 의존명사 ‘시(時)’ ‘외(外)’, ‘투(套)’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2016. 3~4월 모의고사>

- ① 중환자실은 가족의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 ②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십오 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 ③ 편지에는 한문투의 표현이 많아 읽기가 어려웠다.

- ④ 비행시에는 스트래칭으로 하체를 풀어야 한다.

②

★정답풀이 '여(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십오V년여' (○)

★오답풀이 '외', '투', '시'는 모두 의존명사이며, 명사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앞말과 띄어쓰기하는 것이 바르다.

★오답풀이

- ② (×) → 정한 대로 (○): 용언 뒤에 오는 '대로'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③ 요청시 (×) → 요청 시 (○): 일, 현상이 일어날 때나 경우를 뜻하는 '시'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④ 추진력 마저 (×) → 추진력마저 (○): '마저'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남김없이 모두'라는 의미로 쓰이는 '마저'는 부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2016. 지방직 및 서울시 대비 라이브 특강 26번>, <2016 알찬국어 1권 p.111>

수밖에 <2016. 지방직 및 서울시 대비 동형 모의고사 16회 5번, 19회 2번>

만하다 <2016. 지방직 및 서울시 대비 동형 모의고사 18회 3번, 21회 11번>, <2016 알찬국어 1권 p.114, 198>

뿐 <2016. 지방직 및 서울시 대비 동형 모의고사 9회 9번>, <2016 알찬국어 1권 p.112>

4. 글을 고쳐 쓰기 위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고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돌파하는 데서 출발한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론과 법칙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자신만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창의적 사고가 단순히 개인의 독특함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창의적 사고가 사회·문화적 환경과 적절한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 따라서 ㉣자신의 창의성을 계발하기 위해 주변의 사물을 비판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 ① ㉠: 단어의 쓰임이 어색하므로 '탈피하는'으로 고친다.
 ② ㉡: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잇지 못하므로 '또한'으로 고친다.
 ③ ㉢: 주술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길러진다는 점이다'로 고친다.
 ④ ㉣: 주장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환경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고친다.

정답 ②

★정답풀이

'또한'으로 고친다. (×) - '그러나'를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4」의 뜻을 참고하여 보자.

■ 그러나 「부사」 - 다음 사전 참고 -

「1」 앞 내용과 다른 내용을 말할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 주는 말.

예 4월이 되었다. 그러나 날씨는 여전히 추웠다.

예 나는 어린 시절에 우유를 많이 마셨다. 그러나 키가 크지 않았다.

예 그렇지만1, 그렇지만1, 하나21, 하지만1

「2」 앞 내용과 뒤 내용이 서로 상반될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 주는 말.

예 현수는 키가 매우 크다. 그러나 짝궁인 연희는 반에서 키가 가장 작다.

예 상어는 어류에 속한다. 그러나 고래는 어류에 속하지 않는다.

유의어 그렇지만2, 그렇지만2, 하나22, 하지만2

「3」 앞 내용과 뒤 내용이 양보적 대립을 나타낼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 주는 말.

예 지금 내가 매우 슬퍼서 우는 것은 충분히 이해해. 그러나 아무데서나 울지 마.

유의어 그렇지만3, 그렇지만3, 하나23, 하지만3

「4」 뒤 내용이 앞 내용에 조건으로 덧붙여질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 주는 말. 뒤의 조건을 강조하여 제시할 때 쓰인다.

예 이제 좀 쉬도록 해. 그러나 너무 쉬면 안 된다.

● 있는 걸 모두 치워도 돼. 그러나 저것은 절대 치우면 안 돼.
단15(但)1, 하나24

「무사」
 1]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과 함께. = 역시(亦是) 「1」 주위 환경이 좋으면 마을의 살림살이 또한 풍족할 것이다.
 2] 그 위에 더. 또는 거기에도 더. 그녀는 마음도 착하고 또한 건강하다.

■ 그런데

1] 뒤 내용이 앞 내용과 대립될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 주는 말.

예 분명히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영수가 끝내 오지 않았네요.
영화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끝까지 반대하더군요.

유의어 한테 준말 근데

2] 뒤 내용을 앞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 주는 말.

예 네가 다음 주에 한가하다니 다행이야. 그런데 있잖아, 나 다음 주에 결혼해.

유의어 한테 준말 근데

3] 앞 내용과 뒤 내용이 양보적 대립을 나타낼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 주는 말.

예 그녀는 일주일 동안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도 열심히 했다. 그런데 몸무게는 전혀 줄지 않았다.

5. 밑줄 친 부분의 음이 다른 것은?

- ① 否認
② 否定
③ 否決
④ 否運

정답 ④

<2016 알찬국어 3권 p.132>, <2016 알찬한자 p.184>

否定 <2016 알찬국어 3권 p.112, 131>, <2016 알찬한자 p.184, 297, 298>

否決 <2016 알찬한자 p.184>

否運 <2016. 서지방 및 직울시 대비 동형 모의고사 13회 15번, 19회 8번>, <2016 알찬국어 1권 p.63>

★ 정답풀이

비운(否運): 「1」 막혀서 어려운 처지에 이른 운수. 「2」 불행한 운명.

★ 오답풀이

■ 부인(否認):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함.

■ 부정(否定): 「ㄹ」 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아니하다고 반대함.

② 『논리』 일정한 판단에서 주사와 빈사의 양 개념이 일치하지 아니함. 곧 사물이 서로 일정한 관계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 부결(否決):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적중 문제 한자의 독음이 바른 것은? <2016. 지방직 및 서울시 대비 동형 모의고사 19회 8번>

- ① 否運(불운), 攪亂(각란), 些少(사소)
- ② 懈怠(해태), 後裔(후예), 侮辱(모욕)
- ③ 齷齪(억척), 掌握(장옥), 謁見(알현)
- ④ 懦弱(나약), 偏頗(편파), 蒙利(예리)

정답 ②

6. 친 부분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생각의 위대함이나 오묘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생각이 형님이요, 말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은 동생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 ① ‘사과’는 언제부터 ‘사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어.
- ② 동일한 사물을 두고 영국에서는 [tri:], 한국에서는 [namu]라 표현해.
- ③ 이 소설은 정말 감동적이야. 내가 받은 감동은 말로는 설명이 안 돼.
- ④ 시간의 흐름을 초, 분,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해 온 것은 인간의 사회적 약속이야.

③

★정답풀이

“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

③ 이 소설은 정말 감동적이야. 내가 받은 감동은 말로는 설명이 안 돼.

↳ 생각(큰 그릇)

↳ 말(작은 그릇)

즉, 말은 작은 그릇이므로 큰 그릇인 생각이 작은 그릇인 말에 다 담기지 않는다는 뜻의 ③의 예가 적절하다.

7. ‘셋강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토의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토의는 어떤 공통된 문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안을 얻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의논하는 말하기 양식이다. 패널 토의, 심포지엄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 패널 토의는 3~6인의 전문가들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일반 청중 앞에서 토의 문제에 대한 정보나 지식, 의견이나 견해 등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유형이다. 토의가 끝난 뒤에는 청중의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 토의자들이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청중들은 관련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 심포지엄은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점, 청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패널 토의와 그 형식이 비슷하다. 다만 전문가가 토의 문제의 하위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연설이나 강연의 형식으로 10분 정도 발표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 ① ㉠과 ㉡은 모두 ‘셋강 살리기’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 ② ㉠과 ㉡은 모두 ‘셋강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책을 얻기 위함이 목적이다.
- ③ ㉡은 토의자가 셋강의 생태적 특성, 셋강 살리기의 경제적 효과 등의 하위 주제를 발표한다.
- ④ ㉠은 ‘셋강 살리기’에 대해 찬반 입장을 나누어 이야기한 후 절차에 따라 청중이 참여한다.

정답 ④

★정답풀이

‘셋강 살리기’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패널 토의’의 방법이 아니다. 찬성과 반대의 양론의 주장을 펼쳐며 문제를 해결하는 말하기 방법은 ‘토론’이다. 패널 토의에서 전문가들은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보나 지식을 자유롭게 주고받는다. ㉠의 설명은 윗글을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

패널 토의

3~6인의 전문가들, 일반 청중 참여한다.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전문가들이 일반 청중 앞에서 토의 문제에 대한 정보나 지식, 의견이나 견해 등을 자유롭게 주고받는다.

토의가 끝난 뒤, 청중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 토의자들이 답변을 한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청중들은 관련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심포지엄

전문가와 청중이 참여한다. 청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 패널 토의와 그 형식이 비슷하다.

다만 전문가가 토의 문제의 하위 주제에 대해 청중 앞에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연설이나 강연의 형식으로 10분 정도 발표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8. 친 부분의 함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피아노를 향하여 앉아서 머리를 기울였습니다. 몇 번 손으로 키를 두드려 보다가는 다시 머리를 기울이고 생각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 여섯 번을 다시 하여 보았으나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피아노에서 울려 나오는 음향은 규칙 없고 되지 않은 한낱 소음에 지나지 못하였습니다. 야성? 힘? 귀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감정의 재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잘 안 됩니다.”

그는 부끄러운 듯이 연하여 고개를 기울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두 시간도 못 되어서 벌써 잊어버린담?”

나는 그를 밀어 놓고 내가 대신하여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아까 베낀 그 음보를 퍼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베낀 곳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화염! 화염! 빈곤, 주립, 야성적 힘, 기괴한 감금당한 감정! 음보를 보면서 타던 나는 스스로 흥분이 되었습니다.

- 김동인, 「광염 소나타」 중에서 -

- ① 화려한 기교가 없는 연주
- ② 악보와 일치하지 않는 연주
- ③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연주
- ④ 기괴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연주

④

★정답풀이

“ 시간도 못 되어서 벌써 잊어버린담?”

↳ 그의 지금의 연주는 2시간 전의 연주와 다름을 알 수 있다.

“화염! 화염! 빈곤, 주립, 야성적 힘, 기괴한 감금당한 감정! 음보를 보면서 타던 나는 스스로 흥분이 되었습니다.”

↳ 서술자인 ‘나’가 음보를 그대로 연주하였을 때는 ‘나’는 ‘기괴한 감정’을 느끼면 흥분이 됨을 통해서 그가 처음 연주하였을 때는 이 악보 그대로의 ‘기괴한 감정’이 느껴지는 연주였을 거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연주에는) 감정의 재뿐이 있었습니다.”의 함축적 의미는 그의 처음 연주와는 달리 ‘기괴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연주’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9. 두 사람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저어기, 개천에서 올라오는 저 사람이 인제 어딜 가는지 알아내시겠어요?”

“어디, 누구?”

“저거, 땅꾼 아니냐?”

“땅꾼요?”

“ 대장 말야.”
 “저건 둘째 대장예요. 근데 지금 어딜 가는지 아시겠어요?”
 “인석,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그러면 소년은 가장 자랑스러이,
 “인제 보세요. 저어 다리께 가게루 갈 테니.”
 “어디 참, 땀은 가게로 들어가는구나. 저놈이 담뱃 사러 갔을까?”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나올 테니 보세요. 자아, 다시 돌쳐서서 이쪽으로 오죠?”
 “그래 인젠 저놈이 어딜 가누.”
 “인제, 개천가 선술집으루 들어갈 테니 보세요.”
 “어디 참, 땀은 술집으루 들어가는구나. 그래두 저놈이 가게서 뭐든지 샀겠지, 그냥 거긴 갔다 올 까닭이 있나?”
 “왜 들어가는지 아르켜 드릴까요? 저 사람이, 곧잘, 다리 밑으루 들어가서, 게서, 거지들한테 돈을 십 전이구 이 십 전이구, 얻어 갖거든요. 그래 그걸루 술두 사 먹구, 밥두 사 먹구 허는데, 그래 거지들이 동냥해 들인 거니, 이 십 전이구, 삼십 전이구 간에, 모두 동전 한 푼짜릴 거 아녜요? 근데 저 사람이 동전 가지군 절대 술집엘 안 들어 가거든요. 그래 언제든지 꼭 가게루 가서 그걸 모두 십 전짜리루 바꿔 달래서”
 - 박태원, 「천변풍경」 중에서 -

- ① 두 사람의 관심사가 달라서 대화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 ② 한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면서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현실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다.
- ④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아내고 있다.

②
 ★정답풀이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면서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다. 소년은 이미 거지 대장이 어디를, 왜 가는지 알고 있으면서 점차 적으로 질문하면서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다.

	상대방
“저지 둘째 대장이 어디를 가는지 아시겠어요?”	“인석,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인제 다리께 가게로 갈 테니.”	“어디 참, 땀은 가게로 들어가는구나. 저놈이 담뱃 사러 갔을까?”
“아무것도 안 사고 나올 테니 보세요.”	“그래 인젠 저놈이 어딜 가누.”
“인제 개천가 선술집을 들어갈 테니 보세요.”	“어디 참, 땀은 술집으루 들어가는구나. 그래두 저놈이 가게서 뭐든지 샀겠지, 그냥 거긴 갔다 올 까닭이 있나?”
“왜 들어갔는지 아르켜 드릴까요? (중략) 저 사람이 동전 가지군 절대 술집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 언제든지 꼭 가게루 가서 그걸 모두 십 전짜리루 바꿔 달래서...”	

10.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그 학교에서 강의를 재미있게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한 인류학 교수의 수업을 대상으로 실험을 계획했다. 그 심리학 교수는 인류학 교수에게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만 사전에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전달했다. 첫째, 그 교수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열심히 들을 것. 둘째, 얼굴에는 약간 미소를 띠면서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간혹 질문도 하면서 강의가 매

재미있다는 반응을 겉으로 나타내며 들을 것.

한 학기 동안 계속된 이 실험의 결과는 흥미로웠다. 우선 재미없게 강의하던 그 인류학 교수는 줄줄 읽어 나가던 강의 노트에서 드디어 눈을 떴고 학생들과 시선을 마주치기 시작했고 가끔씩은 한두 마디 유머 섞인 농담을 던지기도 하더니, 그 학기가 끝날 즈음엔 가장 열의 있게 강의하는 교수로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변화였다. 처음에는 실험 차원에서 열심히 듣는 척하던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 정말로 강의에 흥미롭게 참여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소수이긴 하지만 아예 전공을 인류학으로 바꾸기로 결심한 학생들도 나오게 되었다.

- ① 학생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
- ② 교수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
- ③ 언어적 메시지의 중요성
- ④ 공감하는 듣기의 중요성

④

★정답풀이

[내용] - 실험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듣기'와 '듣기의 태도-공감(共感)'이다.

- ① 학생들: 주의를 집중하면서 열심히 '들을 것'.
- ② 학생들: 얼굴에는 약간 미소를 띠면서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간혹 질문도 하면서 강의가 매우 재미있다는 반응을 겉으로 나타내며 '들을 것'.
↳ ' (共感)'하며 듣기.

↳ 공감(共感):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

[실험의 결과] - 듣기의 태도에 따라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즉, '공감하며 듣기가 매우 중요함'

학생: 열심히 듣는 척하던(거짓 태도를 꾸미던)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 정말로 강의에 흥미롭게 참여하게 됨.

참고 2007 시험 기출 문제 - 2007년에 출제되었던 지문이다.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은? <2007. 국가직 9급>

- ①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듣기의 효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
- ② 심리학 강의를 듣는 인류학과 학생들이 듣기 실험에 참여하였다.
- ③ 실험 전에 인류학 교수는 강의하면서 학생들과 시선을 맞추지 않았다.
- ④ 학생들은 실험 내내 인류학 강의를 열심히 듣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답 ③

★정답풀이 인류학 교수는 학생들과 시선을 맞추지 않았다.

- ③ '줄줄 읽어 나가던 강의 노트에서 드디어 눈을 떴고 학생들과 시선을 마주치기 시작했다.'를 통해서 실험 전에는 인류학 교수가 학생들과 시선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실험에 참여한 학생에게 몇 가지 주의 사항만 일러 주었으므로, 그들이 '듣기의 효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한 것은 틀리는 설명이다.
- ② 듣기 실험에 참여한 대상은 인류학 강의를 수강한 학생이라고만 했으므로 '심리학 강의'를 듣는 인류학 수강생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수강생들은 처음에는 재미삼아 들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열심히 듣게 되었으므로 '학생들이 실험 내내 강의를 열심히 듣기 위해 노력하였다.'라는 것은 틀리는 설명이다.

11. 제시된 의미와 가장 가까운 속담은?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서 허세를 부리려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① 가난한 집 신주 굵듯
- ②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다

- ③ 기와집 짓는다
④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③

기와집 짓는다 <2016 알찬국어 3권 p.438>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2016 알찬국어 3권 p.438>

★정답풀이

- 기와집 짓는다: 「1」 당장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넉넉지 못한 가난한 살림일수록 기와집을 짓는다는 뜻으로,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서 허세를 부리려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가난하다고 주저앉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잘살아 보려고 용단을 내어 큰일을 벌인다는 말.

★오답풀이

- ① ■ 가난한 집 신주 굽듯: 가난한 집에서는 산 사람도 배를 굽는 형편이므로 신주까지도 제사 음식을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하게 된다는 뜻으로, 줄곧 굶기만 한다는 말.
② ■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다: 가난한 집에는 먹고 살아 나갈 걱정이 큰데 자식까지 많다는 뜻으로, 이래저래 부담되는 것이 많음을 이르는 말.
④ ■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살아가기도 어려운 가난한 집에 제삿날이 자꾸 돌아와서 그것을 치르느라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으로, 힘든 일이 자주 닥쳐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2. 친 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숲에서 자생하던 희귀 식물들의 개체 수가 줄었다.
②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이것저것 따질 개재가 아니다.
③ 이번 아이디어 상품의 출시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다.
④ 현대 사회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보가 넘쳐 난다.

정답 ②

자생 <2016 알찬국어 1권 p.555>

계제 <2014. 국가직 대비 동형 모의고사 9회 8번>, <알찬국어 스터디 모의고사>

성패 <2016 알찬한자 p.225>

유례 <2016. 지방직 및 서울시 대비 동형 모의고사 9회 2번>, <2016 알찬한자 p.277>

★정답풀이

개재 (×) → 계제 (○)

■ (階梯): 「1」 사다리라는 뜻으로, 일이 되어 가는 순서나 절차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계제를 밟다/깊이 알려고 할수록 공부에는 밟아야 되는 계제가 있음도 짐작이 되었다. 불차탁용이란 계제를 가리지 않고 자리를 뛰어서 인물 본위로 벼슬자리를 준다는 가장 영광스러운 승진을 말하는 것이다. 「2」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형편이나 기회. ③ 변명할 계제가 없었다/이것저것 가릴 계제가 아니다./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소리할 계제가 못 된다. 아무래도 다른 동무들한테 한풀 꺾이는 것을 액색히 생각해서 기회를 보다가 계제를 만나, 작년 봄에 이 군산 지점으로 전근을 시켜 주었다. 「3」 『운동』 기계 체조에 사용하는, 옆으로 비스듬히 세운 사다리. 구별 ■ 개재(介在): 어떤 것들 사이에 끼여 있음. ‘끼어들’, ‘끼여 있음’으로 순화. ㉠ 사적 감정의 개재가 이 일의 변수이다. ■ 계제(計除) - 셈을 따져서 제할 것을 제함. ■ 계제(揭載) - 글이나 그림 따위를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실음. ㉡ 그의 논문은 유명 학회지에 계제될 예정이다.
--

적중 문제 <알찬국어 스터디 모의고사>, <2014. 국가직 대비 동형 모의고사 9회 8번>

중 밑줄 친 ㉠~㉣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 * 우리로서는 이것저것 가릴 (㉠)가 아니다.
- * 신문에는 셋이 찍은 사진이 기사와 함께 (㉡)되어 있었다.
- * 이번 협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수많은 변수가 (㉢)될 수 있다.

— ㉡ ㉢

- ① 개제 - 개제 - 개제
- ② 계제 - 개제 - 개제
- ③ 계제 - 개제 - 개제
- ④ 계제 - 개제 - 계제

■ ③

★오답풀이

① ■ (自生):

1]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 예 자생 능력/자생과 자멸을 거듭하다

2] 저절로 나서 자람. 예 자생 춘란(春蘭)

③ ■ 성패(成敗): 성공과 실패를 아울러 이르는 말.

예 성패 여부/성패를 가름하다/성패를 좌우하다/회사의 성패가 달려 있는 이번 사건에 전 직원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별

■ 승패(勝敗): 승리와 패배를 아울러 이르는 말.

예 승패를 가르다/승패를 결정하다/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선수들의 정신력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

④ ■ 유례(類例): ((주로 없거나 적다는 뜻의 서술어와 함께 쓰여))

1] 같거나 비슷한 예. 예 그들의 잔혹한 통치 정책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다./독재자 개인을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2] 이전부터 있었던 사례. = 전례(前例) 예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번/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호황.

구별

■ 유래(由來): 사물이나 일이 생겨남. 또는 그 사물이나 일이 생겨난 바.

예 한식의 유래/유래가 깊다/유래를 찾기 힘들다/이 민속 행사의 유래는 신라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설 중에는 특정한 풍속의 유래를 설명하는 것이 많다.

적중 문제 <2016. 4~6. 서울시 및 지방직 대비 동행 모의고사 9회 2번> 유래(由來)와 유례(類例)의 구별

독재자 개인을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 → 유례(類例) (○)

13.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 ① 관한 한 독보적인 기록도 깨졌다.
- ② 상자에 이런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 ③ 친구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항상 못되게 군다.
- ④ 저 모퉁이에서 얼굴이 하얀 이가 걸어오고 있다.

정답 ①

★정답풀이

① 타율(打率), 한(限), 독보적(獨步的), 기록(記錄) - 명사 4개

‘-적(的)’ 접미사가 붙은 단어의 품사는 ‘명사’, ‘관형사’, ‘부사’이다. ①의 ‘독보적’ 뒤에 격조사 ‘이다’가 있으므로 ‘독보적’의 품사는 명사임을 알 수 있다.

■ (獨步的)

[I] 명사] 남이 감히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것. 예) 그 사람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알려진 인물이다.

[II] 「관형사」 남이 감히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예) 독보적 가치/독보적 지위

point 'OO (的)'의 품사 '명사, 관형사, 부사' 구별 방법

품사	예제
㉠ OO적(的)+격조사 ↳명사	예) 일시적인 현상/일시적으로/가급적이면
㉡ OO적(的)∨체언 ↳관형사	예) 일시적 현상/일시적 감정/일시적 기분
㉢ OO적(的)∨용언 및 부사 ↳부사	예) 가급적 많이 도와주세요.

‘한’의 품사가 명사인 것은 앞 말 ‘관한’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는 체언이 뒤따르므로 ‘한’의 품사는 명사임을 알 수 있다.

■ 한(限): 「명사」 ((주로 ‘-는 한’ 구성으로 쓰여))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말.

예) 가능한 한 일을 빨리 처리해라/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적중 문제 ‘-적(的)’ 관련 문제

<보기>의 밑줄 친 단어의 품사와 같은 것은? <2016년 3-4월 모의고사 12회 5번>

<보기> 일을 가급적 빨리 끝내도록 해라.

①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너무 부르다.

② 그는 한 신문지를 바닥에 깔았다.

③ 그녀는 일을 매우 꼼꼼하게 처리한다.

④ 은수는 웃기만 할 뿐 말이 없었다.

■ ①

★정답풀이 ‘-적(的)’ 접미사가 붙은 단어의 품사는 ‘명사’, ‘관형사’, ‘부사’이다. <보기>의 ‘가급적’ 뒤에 격조사가 없고, 부사와 용언만 나오므로 ‘가급적’의 품사는 부사이다. 따라서 품사가 같은 것은 부사 ‘많이’이다.

★오답풀이 ② 관형사 ‘한’ ③ 형용사 ‘꼼꼼하다’ ④ 의존명사 ‘뿐’

참고 ■ 가급적(可及的)

[I] 「명사」 ((주로 ‘가급적이면’, ‘가급적으로’ 꼴로 쓰여))할 수 있는 것. 또는 형편이 닿는 것.

예) 가급적이면 빨리 가도록 해라/가급적이면 오는 게 좋을 것 같다/예산은 가급적으로 적게 편성해라.

[II] 「부사」 할 수 있는 대로. 또는 형편이 닿는 대로.

예)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일을 끝내도록 해라/가급적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적(一時的)

[I] 「명사」 ((주로 ‘일시적인’, ‘일시적으로’ 꼴로 쓰여))짧은 한때의 것. 예) 일시적인 현상/일시적으로 깨어나다.

[II] 「관형사」 짧은 한때의. 예) 일시적 감정/일시적 현상/일시적 기분

시험 적중 문제 의존명사 ‘한(限)’ 관련 문제

어법에 바른 문장은? <2016년 3-4 지방직 모의고사 4회 14번>

이 일을 가능한 빨리 처리해라. (×)

★정답풀이 가능한 빨리 (×) → 가능한 한(限) 빨리 (○)

‘가능한’은 형용사 ‘가능하다’의 활용형이다.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붙여 활용을 하면, 뒤에 꾸밈을 받을 체언이 와야 한다.

‘빨리’는 부사이므로 ‘가능한’이 ‘빨리’를 수식할 수 없다.

참고 ■ 한(限): 「명사」

「1」 ((주로 ‘없다’, ‘있다’와 함께 쓰여)) 시간, 공간, 수량, 정도 따위의 끝을 나타내는 말.

예) 사람의 욕망은 한이 없다/기다리고 참는 데에도 한이 있다.

「2」 ((‘-기(가)’ 한이 없다’ 구성으로 쓰여)) 앞에 쓰인 형용사의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내는 말.

예) 우승을 놓쳐서 억울하기가 한이 없다.

「3」 ((‘-는 한이 있더라도’ 또는 ‘-는 한이 있어도’ 구성으로 쓰여)) 어떤 일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무릅써야 할 극단적 상황을 나타내는 말.

- 예 파는 한이 있어도 학업은 계속하겠다/설령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싸우겠다.
 「4」 ((주로 ‘-는 한’ 구성으로 쓰여))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말.
 예 가능한 한 일을 빨리 처리해라/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오답풀이

② , 것 - 명사 2개

적중 문제 '것' 관련 문제

어문 규정에 대한 설명과 예제 연결이 바른 것은? <2016년 4-5 지방직 모의고사 7번>

②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예 이는V게(것이)V합이다. ★정답풀이 '것'은 의존명사이므로 적절한 예제이다.

정답 풀이 깔끔하게 - '깔끔하다' (형용사): 접미사 '-하다'가 결합된 파생 형용사.

참고 정돈되어 - '정돈되다' (동사): 피동접미사 '-되다'가 결합된 파생 동사.

③ 친구, 외, 사람 - 명사 3개

외(外): 「의존명사」 일정한 범위나 한계를 벗어남을 나타내는 말.

예 필기도구 외에는 모두 책상 위에서 치우시오/병실에 가족 외의 사람은 출입을 제한합니다.

시험 적중 문제 의존명사 '외(外)' 관련 문제

띄어쓰기 <2016년 3-4월 모의고사 5회 5번>

① 중환자실은 가족외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정답풀이 가족외 (×) → 가족V외 (○): 「외(外)」는 의존명사이며, 명사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앞말과 띄어쓰기하는 것이 바르다.

참고 항상(恒常) 부사 언제나 변함없이. 예 항상 웃는다/그는 항상 바쁘다.

④ 모퉁이, 얼굴, 이[人(인)] - 3개

이: 「의존명사」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말.

예 말하는 이/말을 이/저 모자 쓴 이가 누구지?/지나가던 이들이 모두 대로에서 다투는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시험 적중 문제 의존명사 '이' 관련 문제

띄어쓰기가 모두 바른 것은? <2016년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5회 8번> <2016년 3-4월 모의고사 17번>

③ 이 일에 반대할 이도 찬성할 이V만큼이나 많다.

★정답풀이 「찬성할」 뒤의 '이'와 「반대할」 뒤의 '이'는 의존명사로 앞말과 띄어 쓰는 게 맞다. 체언 뒤의 '만큼'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는 게 맞다. '이나'도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는 게 맞다.

14. 친 부분의 한자가 옳은 것은?

- ① 규정(規正)에 따라 표절 논문을 반려하였다.
 ② 문법 구조(救助)를 잘 이해하면 독해력이 향상된다.
 ③ 각급 기관에서 협조할 사안이 충분(充分)히 있다.
 ④ 사회적 현상(懸賞)을 파악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답 ③

구조(構造) <2016 알찬한자 p.29>

현상(現象) <2016 알찬국어 3권 p.123>, <2016 알찬한자 p.13, 45>

★정답풀이

充分 [찰 (충), 나눌 (분)]: 모자람이 없이 넉넉함.

★오답풀이

① 規正 → 規定

規定 [법 (규), 정할 (정)]

- 1] 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 = 규제
 2]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
 3] 『법률』 양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하여 정함.
 구별 規正 [법 (규), 바를 (정)]: 바로잡아서 고침.

② 救助 → 構造

■ 構造 [엮을 (구), 지을 (조)]

- 1]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 이룸. 또는 그렇게 이루어진 일개.
 2] 일정한 설계에 따라 여러 가지 재료를 엮어서 만든 물건. 건물, 다리, 축대, 터널 따위가 있다. = 구조물
 구별 구조 [救 구원할 (구), 助 도울 (조)]: 재난 따위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④ 懸賞 → 現象

■ 現象 [나타날 (현), 코끼리·형상 (상)]

- 1]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모양과 상태.
 2] 『철학』 본질이나 객체의 외면에 나타나는 상.

구별 懸賞 [매달 (현), 상줄 (상)]

무엇을 모집하거나 구하거나 사람을 찾는 일 따위에 현금이나 물품 따위를 내걸. 또는 그 현금이나 물품.

적중 문제

친 단어의 한자 표기로 틀린 것은? <2016 3-4월 모의고사 5회 6번> <6월 지방직 대비 라이브 한자특강>

- ① 현상(現狀) 유지만 해도 장사 잘하는 겁니다.
 ② 사태가 새로운 양상(樣相)으로 전개되다.
 ③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想像)도 하지 못했다.
 ④ 고산 지역은 기상(氣象) 변화가 심하다.

③

★정답풀이

- ㉠ 현상(現狀): 현재의 상태, 지금의 형편 (①번 예제)
 ㉡ 현상(現像): 형상을 나타냄. 또는 사진술에서, 노출된 필름이나 인화지를 약물에 넣어 상이 나타나게 함.
 ㉢ 현상(現象): 관찰할 수 있는 사물의 형상 (예) 자연 현상/ 또는 (철학) 본질이나 객체의 외면에 나타나는 상.
 ㉣ 현상(懸賞): 무엇을 모집하거나 구하거나 사람을 찾는 일 따위에 상을 걸. (예) 유괴범이 오랫동안 잡히지 않자 현상금을 더 올렸다.
 ㉤ 양상(樣相):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 (②번 예제)
 ㉥ 상상(想像):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 봄. (③번 예제)
 ㉦ 기상(氣象):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을 통틀어 이르는 말. 바람, 구름, 비, 눈, 더위, 추위 따위를 이른다. (④번 예제)
 ㉧ 기상(氣像): 사람이 타고난 기개나 마음씨. 또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
 ㉨ 상태(狀態): 사물·현상이 놓여 있는 모양이나 형편.

15. 친 한자 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너무 번드르르해 미답지 않은 자들은 대부분 口蜜腹劍형의 사람이다.
 ② 그는 싸움다운 전쟁도 못하고 一敗塗地가 되어 고향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③ 그에게 마땅히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首鼠兩端하다가 시기를 놓쳤소?
 ④ 요새 신입생들이 선배들에게 예의를 차릴 줄 모르는 걸 보면 참 後生可畏하다는 생각이다.

정답 ④

구밀복검(口蜜腹劍) <2016 알찬국어 3권 p.14, 42, 92, 100>, <2016 알찬한자 p.129, 162, 178, 275>

수서양단(首鼠兩端) <2016 알찬국어 3권 p.43>, <2016 알찬한자 p.130>

후생가외(後生可畏) <2016 알찬국어 3권 p.82, 85, >, <알찬한자 p.26, 214, 269, 354>

★정답풀이

- (後生可畏): 젊은 후학들을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으로, 후진들이 선배들보다 젊고 기력이 좋아, 학문을 닦음에 따라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므로 가히 두렵다는 말. 《논어》의 <자한편(子罕篇)>에 나오는 말.

- 청출어람(靑出於藍):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적중 문제 <2016 4-5

9회 6번> <6월 지방직 대비 라이브 한자특강> <2016 3-4월 모의고사 4회 10번>

(後生可畏), 청출어람(靑出於藍), 후생 각(角)이 뛰어나다.

★오답풀이

- ① ■ 구밀복검(口蜜腹劍):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이룸.
- ② ■ 일패도지(一敗塗地): 싸움에 한 번 패하여 간과 버가 땅바닥에 으깨어진다는 뜻으로, 여지없이 패하여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름을 이룸. 한 고조 유방의 말로서 《사기》의 <고조본기(高祖本紀)>에 나오는 말.
- ③ ■ 수서양단(首鼠兩端): 구멍에서 머리를 내밀고 나갈까 말까 망설이는 쥐라는 뜻으로, 머뭇거리며 진퇴나 거취를 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룸.

16. 주장을 가장 적절하게 분석한 것은?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산되면서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 당국이 은행에도 일부 보상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개인들이 자신의 정보를 잘못 관리한 책임까지 은행에서 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은행 입장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민수: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 관리에 다소 부주의함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부주의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시급합니다.

- ① 영수와 달리, 민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② 영수와 민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확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은행과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영수와 민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④ 영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은행의 역할을, 민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답 ①

★정답풀이

영수는 '개인들이 자신의 정보를 잘못 관리하였다.'라고 하며 책임을 개인들(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민수는 '개인의 부주의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라고 하며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17.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어에서 위기를 뜻하는 단어 'crisis'의 어원은 '분리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크리네인(Krinein)'이다. 크리네인은 본래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이 되는 병세의 변화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서양인들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침착하게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사리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동양에서는 위기(危機)를 '위험(危險)'과 '기회(機會)'가 합쳐진 것으로 해석하여,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라고 한다. 동양인들 또한 상황을 바라보

관점에 따라 위기가 기회로 변모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 ① 위기가 아예 다가오지 못하게 미리 대처해야 한다.
- ②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 ③ 위기가 지나갔다고 해서 반드시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다.
- ④ 욕심에서 비롯된 위기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봐야 한다.

②

★정답풀이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

서양: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사리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동양: 위기가 기회로 변모될 수도 있다고 본다.

18. 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금와는 그때 한 여자를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만났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하백의 딸 유화입니다. 동생들과 놀러 나왔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며 웅신산 아래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인하여 사통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 것을 꾸짖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내 살도록 했습니다.”

㉡금와가 괴이하게 여겨 유화를 방 안에 남몰래 기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비추었다. 그녀가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 또 비추었다. 이로 인해 임신하여 알을 하나 낳았는데, 크기가 다섯 되쯤 되었다. ...(중략)... 금와에게는 아들이 일곱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다. 그러나 그들의 기예가 주몽에게 미치지 못하자 ㉢말아들 대소가 말했다. “주몽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 일찍이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왕은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했다. 주몽은 준마를 알아보고 먹이를 조금씩 주어 마르게 하고, 늙고 병든 말은 잘 먹여 살지게 했다. 왕은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주몽에게는 마른 말을 주었다. 왕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들이 함께 주몽을 해치려 하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주몽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나라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 너의 재력이라면 어디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빨리 떠나거라.”

그래서 주몽은 오이 등 세 사람과 벼를 삼아 떠나 개사수에 이르렀으나 건널 배가 없었다. ㉣추격하는 병사들이 문득 닥칠까 두려워서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빌었다. “나는 천제의 손자이고, 하백의 외손이다. 황천후토(皇天后土)는 나를 불쌍히 여겨 급히 주교(舟橋)를 내려 주소서.” 하고 활로 물을 쳤다. 그러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어 강을 건너게 했다. 그러고는 다리를 풀어 버렸으므로 뒤쫓던 기병은 건너지 못했다.

- 작자 미상, 「주몽신화」 중에서 -

- ① ㉠: ‘유화’가 귀양에 처해진 이유를 알 수 있다.
- ② ㉡: ‘유화’가 임신을 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 ③ ㉢: ‘주몽’이 준마를 얻기 위해 ‘대소’와 모의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 ‘주몽’이 강을 건너가기 위해 ‘신’과 교통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정답풀이

금와 왕의 말아들 ‘대소’는 ‘주몽’을 시기하고 해치려는 자이다. ‘주몽’이 준마를 얻기 위해 ‘대소’와 모의하였다는 설명은 글을 잘못

것이다. 또한 주몽은 준마에게 먹이를 조금씩 주어 살찌지 않게 하였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준마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이다. 따라서 주몽이 준마를 얻기 위해 대소와 모의하였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19. 친 부분과 가장 유사한 속성을 지닌 현대인의 삶의 태도는?

이후 인간들은 불안감과 고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중 하나가 복종을 전제로 하는 권위주의적 양태이다. 이는 개인적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자기 이외의 어떤 존재에 종속되고자 하는 것으로, 사라진 제1차적 속박 대신에 새로운 제2차적 속박을 추구하는 양상을 띤다. 이것은 때로 상대방을 자신에게 복종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얻으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견 대립적으로 보이는 이 두 형태는 불안감과 고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권위주의적 양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다.

- ① 소속된 집단의 이익이나 정의보다는 개인의 이익이나 행복만을 추구하는 태도
- ② 집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부모나 어른의 의견보다는 아이들의 요구를 먼저 고려하는 태도
- ③ 어떤 상황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가지기보다는 언론 매체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 ④ 직업을 통해서 얻는 삶의 만족보다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얻는 삶의 즐거움을 더 중시하는 태도

③

★정답풀이

불안감과 고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권위주의적 양상

- (1) 개인적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자신이) 자기 이외의 어떤 존재에 종속되고자 하는 것
- (2) 상대방을 자신에게 복종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얻으려는 형태

- ③ 자신의 견해를 가지기보다는 언론 매체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개인적 자아의 독립 포기함. ↳자기 이외의 존재에 종속되고자 함.

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때, 상징적 행동을 배제하게 되면 남는 것은 실용성과 관련된 설명뿐이다. 그러나 아메리카에서 시가가 유행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런 기능적 설명이 통하지 않는다. 가령, 사람들이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주장을 들어 보자. 일견 수긍되는 점이 있다. 사람들의 흡연 욕구가 여전하다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메리카 사회가 시가를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켄련을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지 않은 까닭을 설명할 수가 없다.

켄련을 피우는 사람들은 이제 공공건물 앞의 보도에 한테 모여서 흡연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 사이에 즉각적 연대감을 형성하면서 말이다. 그런 그들에게 더러 경멸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공공건물 밖에서 흡연을 하는 한, 남에게 해가 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가를 피우는 사람들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그들은 저녁 식사가 끝날 즈음에, 또는 파티 도중에 전리품을 자랑하듯이 당당하게 시가를 꺼내어 입에 문다. 그들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찌하여 이런 차별이 생긴 것일까? 연기를 삼키지 않기 때문에 시가가 몸에 덜 해롭다는, 일반적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고 뱉어 내는 것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실내 공기를 더욱 심하게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 당국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켄련과의 투쟁을 선포했다. 그러자 켄련은 죽음의 상징이 되었고, 그 캠페인은 상류층 사람들 사이에 즉각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아무도 켄련을 피우지 않지만, 싸구

술집에는 여전히 쫄런 연기가 자욱하다.

- ① 자문자답 형식을 사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② 난해한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④ 다른 현상과의 비교를 통해 특정 현상에 담긴 의미를 밝히려 한다.

②

★정답풀이

단어의 개념을 밝히는 ‘정의’ 방식이 쓰이지 않았다.

point ■ 정의(定義)

: 어떤 용어나 단어의 뜻을 밝히는 설명 방법이다. 예 종자식물의 번식기관이다.

또는 개념을 밝히는 설명 방법이다. 개념을 밝힐 때에는 개념이 속하는 가장 가까운 유(類)개념을 들어, 다시 종차(種差)를 들어 그 개념과 등위(等位)의 개념(종개념)에서 구별하여 나타낸다.

예 이등변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예 직각삼각형은 한 내각이 직각인 삼각형이다.

예 정삼각형은 변의 길이와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다.

참고

■ 개념(概念):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된 요소를 뽑아내 종합해서 얻은 하나의 보편적인(모든 것에 공통되거나 들어맞는) 관념.

★오답풀이

- ① 자문자답 형식을 사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3문단: ‘어찌하여 이런 차별이 생긴 것일까?’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③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1문단: 가령, 사람들이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주장을 들어 보자. 일견 수긍되는 점이 있다.

사람들의 흡연 욕구가 여전히하다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메리카 사회가 시가를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쫄런을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지 않은 가답을 설명할 수가 없다.

- ④ 다른 현상과의 비교를 통해 특정 현상에 담긴 의미를 밝히려 한다.

2문단:

“쫄런을 피우는 사람들은 이제 공공건물 앞의 보도에 한데 모여서 흡연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 (비교-대조)

“시가를 피우는 사람들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중략) 그들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찌하여 이런 차별이 생긴 것일까?”

↓ (다른 현상과의 비교를 통해)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다음과 같다.”

↓ (특정 현상에 담긴 의미를 밝히려 한다.)

참고 ■ 비교: ‘논리’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과 공통점, 차이점 따위를 밝히는 일.

point 사전적 정의의 ‘비교’는 광의의 개념으로 ‘대조’를 포함한다.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비교’를 ‘대조’와 변별할 때, 대상 사이의 유사점에 대하여 설명하는 일을 ‘비교’라 하고, 그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는 일을 ‘대조’라 한다.

적중 문제 ‘ , 정의’ 관련 문제

글의 내용 전개 방식과 같은 것은? <2016년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6회 14번>

위하여 산다는 것은, 어떠한 꿈을 그리며 산다는 말이 된다. 이 꿈이란 것은, 현실이 아니라 말이다. 현실 이상의 것, 초현실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꿈과 이상은 꼭 같지가 않다. 꿈은 허탄한 가공의 환상을 가리키는 일이 많다. 그러나 이상은 결코 허황한 망상이 아니다. 초현실적이고, 따라서 비현실적인 점에서는 이상과 꿈이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상은 실현의 가능성이란 것을 수반하는 사고 작용이다. 이상은 비현실적인 것, 초현실적인 것이란 점에서 우리 현실의 권외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면 도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꿈과 다르고, 따라서 공상이 아니다. 꿈과 이상은 이와 같이 정신세계의 차원이 다르다.

- ① 시의 언어는 의미, 리듬, 형상으로 이루어진다.
- ② 문학이란 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하는 예술이다.
- ③ 자음은 성대의 울림 여부에 따라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로 나뉜다.
- ④ 시와 소설은 모두 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하지만, 시의 언어가 운문인 반면 소설의 언어는 산문이다.

④

★정답풀이 제시된 지문은 이상과 꿈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내용 전개 방법은 비교와 대조이다. 따라서 시와 소설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④가 앞글의 내용 전개 방식과 같다.

★오답풀이 ① 분석 ② 정의 ③ 분류(구분)

기출 문제 <2016 4월 모의고사 반 - 보조 자료 제시>

다음 글에서 사용된 '선술' 기법이 아닌 것은? <2009. 국가직>

아리랑이란 민요는 지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발굴된 것은 약 30종 가까이 된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서울의 본조 아리랑을 비롯하여 강원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해주 아리랑, 원산 아리랑 등을 들 수 있다. 거의 각 도마다 대표적인 아리랑이 있으나 평안도와 제주도가 없을 뿐인데, 그것은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최근에는 울릉도 아리랑까지 발견하였을 정도이니 실제로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 민요는 가락과 가사의 차이는 물론 후렴의 차이까지 있는데, 그중 정선 아리랑이 느리고 구성진 데 비해, 밀양 아리랑은 흥겹고 힘차며, 진도 아리랑은 서글프면서도 해학적인 맛이 있다. 서울 아리랑은 이들의 공통점이 응집되어 구성되거나 서글프지 않으며, 또한 흥겹지도 않은 중간적인 은근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서울 아리랑은 그 형식 시기도 지방의 어느 것보다도 늦게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 ① 대상을 분류하여 설명한다.
- ②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여 비교 설명한다.
- ③ 대상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 ④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설명한다.

정답 ③

★정답풀이 '아리랑'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한 부분이 없다. 아리랑에 대한 '정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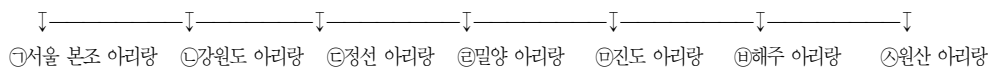
예 타령은 기본 장단은 세마치장단이며, 후렴에 '아리랑'이란 말이 들어 있는 노래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이다.

★오답풀이

- ① 대상을 분류하여 설명한다.

* 지방에 따라

아리랑 민요



참고 '분류'의 사전적 정의: 『논리』 유개념의 외연에 포함된 중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

사전적 정의의 '분류'는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을 포함한다.

국어의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에서는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분류'를 '구분'과 변별할 때,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묶어 가면서 설명하는 방법을 '분류'라고 하고,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 가면서 설명하는 '구분'이라고 한다. 둘은 설명하는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선택지에 '분류'와 '구분'을 둘 모두 제시되지 않는다면 굳이 둘을 변별하지 않아도 된다.

- ②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여 비교 설명한다. (○)

"민요는 가락과 가사의 차이는 물론 후렴의 차이까지 있는데, (중략)~"

↳ 두 대상 간의 차이를 밝히는 것을 '대조'라 하는데, 사전적 정의로 볼 때 '비교'라고도 할 수 있다. 국어의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에서는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비교'를 '대조'와 변별할 때, 대상 사이의 유사점에 대하여 설명하는 일을 '비교'라 하고, 그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는 일을 '대조'라 한다. 그런데 사전적 정의로는 '비교'의 뜻에 '대조'가 포함되어 있음도 알아야 한다.

참고 '비교'의 사전적 정의

■ 비교: 『논리』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과 공통점, 차이점 따위를 밝히는 일.

↳ 정의의 '비교'

④ 각 지역 아리랑 민요의 가락의 특징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정선 아리랑이 느리고 구성지다. 밀양 아리랑은 흥겹고 힘차며, 진도 아리랑은 서글프면서도 해학적인 맛이 있다. 서울 아리랑은 구성지거나 서글프지 않으며, 또한 흥겹지도 않은 중간적인 은근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